

# 손꼽아 기다리던 완성된 주거환경!

### 삼호-이수건설, '우아한시티' 4월 중 분양 교통부터 쇼핑·교육·문화까지 다 갖춰

전주의 최초 도시개발지구인 덕진구에 위치한 우아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이 17년만에 기지개를 펴고 드디어 분양에 나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우아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은 지난 2003년 재건축추진위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0년 정비구역 지정 및 2017년 사업시행인가, 2018년 관리처분 인가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하지만 수요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있었고 지난해 5월 시공사 선정을 마쳐며 다시금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거기에 더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KTX전주역세권 개발계획 등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개발호재가 연달아 발표되며 수요자들의 기대감을 끌어 올렸다.

게다가 과거 전북권역의 중심지였던 덕진구 도심권의 편리한 인프라를 개선된 주거환경에서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으며 우아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은 전주에서 가장 유망한 재건축 단지로 떠올랐다.

전주시 인근 K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우아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은 기존 전주 원도심의 완성된 주거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애초부터 많은 기대를 받은 사업이었다"며 "우아동 3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고 '첫마중길 개선사업', 'KTX전주 현대화사업' 등이 진행되는 등 개발호재까지 겹쳐 외에서도 투자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달 4월, 삼호와 이수건설이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47-81번지에 우아주공 1단지를 재건축하는 '우아한시티'를 분양한다.

'우아한시티'는 '2018년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 아파트 부문 대상을 수상한 '편한세상'의 편안한 삶을 위한 주거공간을 지향하는 브랜드 철학과 '2018년 LH 고객품질 대상' 우수상을 수상한 이수건설 '브라운스톤'의 차별화된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브랜드 철학이 만나 탄생한 통합 브랜드다.

삼호와 이수건설의 기술력을 결집한 선호도 높은 평면에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해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는 전주역세권 입지에서 완성된 인프라와 상품경쟁력까지 모두 갖춘 단지로 조성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1개동, 전용면적 59~115㎡, 총 998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이 중 30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74㎡ 67가구 ▲84㎡ 285가구 ▲115㎡ 107가구다.

'우아한시티'가 위치한 우아동 3가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입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심시가지형' 사업에 선정되어 전주역 주변 상권에 활기가 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첫마중길 개선사업'과 '전주역 현대화사업' (2021년 예정) 등을 통해 전주역세권이 쾌적한 경관 및 청년과 문화, 사회적 경제가 살아 숨 쉬는 활력의 지역으로 탈바꿈해 도시경쟁력을 회복할 전망이다.

'우아한시티'는 교통에서부터 쇼핑, 문화, 교육, 여가까지 모두 갖춘 생활인프라가 특장점이다. 도보거리



전주 우아한시티 투시도.

에 KTX 전주역이 위치해 있고, 반경 5KM 이내에 자리한 동전주IC와 완주IC를 이용해 고속도로 진입도 쉽다. 더불어 백제대로와 동부대로를 이용해 전주의 시내 및 전 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뿐만 아니라 단지와 도보 5분 거리에 홈플러스(전주점)와 백제대로를 중심으로 완성되어 있는 원도심의 풍부한 상업시설 이용이 쉬우며 전북대학교 병원, 주민센터, 우체국, 보건소(2021년 예정) 등의 편의시설 및 공공서의 이용도 쉽다.

이 밖에도 단지 바로 앞 동신초등학교 및 전주북일초등학교, 우아중학교, 기린중학교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건지산과도 마주하고 있어 쾌적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입주민을 배려한 설계도 눈에 띈다. 선호도 높은 중소형 위주의 단지 구성과 활기가 우수한 맞춤형 구조의 4-BAY 중심 설계(일부 이형

설계) 등 입주민을 위한 설계로 효율적인 공간을 구성했으며 전 세대 드레스룸 및 팬트리, 알파룸(일부 세대 제외)을 제공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특히 기술로 완성한 특화설계도 돋보인다. 모서리 부분까지 끊김 없는 단열리인과 디테일한 열교 설계로 결로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였으며, 거실과 주방에 기존보다 2배 두꺼운 60mm 중간소음 저감 바닥재를 적용해 층간소음 및 난방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또 운전자를 배려한 광폭 주차장 설계로 승차각적 없는 넓은 주차장(일부 제외)을 조성한다.

한편, '우아한시티'의 입시홍보관은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94, 2층에 위치해 있으며 모델하우스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46-41번지에 마련된다. 오는 26일 오픈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 한전 남전주지사, 국제 영화제 행사장 환경 정화

한전 남전주지사(지사장 김삼안)는 24일 다음달 2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제20회 전주 국제영화제(JIFF)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제 영화제 행사장 일원의 지상 기기에 대하여 Clean-Up Day 활동을 벌였다.

환경 정화 활동에는 설비 진단 전문가 및 지중 배전 종사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영화의 거리 일대 지상 기기를 점검하고 미관 개선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주변 상가의 한 대표는 "자발적으로 행사를 계획한 한전 직원들을 보니 국제 영화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것 같다"고 격려했다.

김삼안 지사장은 "남은 기간 동안, 지상에 설치된 전력 기기 외부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을 말끔히 제거하고 행사장 주변의 환경 정화 활동도 벌여 '품격의 도시, 깨끗한 전주(全州)' 이미지 제고는 물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 국제 행사가 차질 없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이스타항공, 일본 항공운임 9900원 특가 이벤트 진행

이스타항공은 24일 오전 10시부터 25일 23시 59분까지 이틀 간 인천과 청주, 부산에서 출발하는 일본 12개 전 노선을 대상으로 특가 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탑승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단위의 여행 수요와 6월 이른 휴가를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한 이벤트다.

일본의 5~6월은 사포로 벚꽃, 오키나와 스노클링 등 지역별로 다양한 체험과 여행이 가능하다.

항공운임은 전 노선 최저가 9,900원으로 정규운임대비 최대 97%할인된 금액이다.

편도총액운임기준 최저가로는 ▲인천-도쿄(나리타), 인천-이바라키, 인천-

사포로(신치토세), 인천-오키나와 49,300원 ▲인천-오사카(간사이), 인천-가고시마, 인천-미야자키 48,200원 ▲인천-후쿠오카 45,900원 ▲부산-사포로(신치토세), 청주-사포로(신치토세) 44,300원 ▲청주-오사카(간사이) 43,200원 ▲부산-오사카(간사이) 40,900원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일본노선은 2~3시간 짧은 비행시간과 다양한 관광이 가능해 남녀노소 선호도가 높다"며, "특가 이벤트를 통해 부담 없는 가격으로 항공여행을 계획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istair.com) 및 모바일에서 확인 및 예약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전주 엔타워 컨벤션 웨딩홀에서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제20회 꿈드래장애연합회 합동결혼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 전북은행, 꿈드래장애연합회 합동결혼식 성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꿈드래장애연합회(회장 양현섭)와 함께 전주 엔타워 컨벤션 웨딩홀에서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제20회 꿈드래장애연합회 합동결혼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행사는 어려운 생활형편으로 결혼식에 올리지 못했던 도내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행복한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일깨워주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꿈드래장애연합회 시, 군 지부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된 장애인부부 12쌍은 예복, 예품 등을 지원받아 하객 400여명의 축하 속에 합동결혼식을 올렸고, 부산, 남해 일대로 2박 3일 일정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오게 된다.

전북은행 김성철 부행장은 "결혼식을 통해 장애인 부부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길 바란다"며, "전북은행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 “농경문화 체험으로 생명과 협동의 가치 배워요”

### 전북농협, 농업체험장 본격 조성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도·전북도교육청·3개시(전주·군산·익산)·농협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톨팜(농업체험장)사업 24일 화정초등학교(교장 장미옥) 체험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톨팜은 농산물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모르는 대다수 도시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내에 유휴 부

지인 화단이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밭을 조성한 후, 11월까지 주 1회 수업시간에 농사체험을 하며 농업가치를 느끼는 사업이다.

전북농협에 따르면 올해 전주 20개교, 군산 8개교, 익산 12개교 등 40개교에서 1학기에는 방울토마토 등 10종의 모듬 채소, 5월에서 10월까지는 버섯, 2학기에는 무·배추 김장채소 등 농사 체험장을 운영한다.


또한,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샌드위치 만들기, 김장체험 등 식(食)체험을

병행한다. 체험에 참여한 6학년 학생 80여명의 학생들은 학교 운동장 공간을 새롭게 변형한 텃밭 체험장에서 감자, 상추, 썬갓, 옥수수, 가지, 고추 등 채소 10여종을 직접 심는 식재 체험을 즐겼다.

추후 학생들과 시니어사업단이 공동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작물의 성장과정에 따라 다양한 농사일을 경험하고 재배된 농산물로 학생들이 직접 요리하여 농업의 가치를 느낄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제56회 법의 날



**회장 최낙준**

## 전북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의 인권을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 다양한 법률구조를 통해 도민의 권익향상에 앞장서는 전북지방 변호사회』

『 사회적 약자의 보호 및 지역격차의 해소에 앞장서는 전북지방변호사회』

『 전라북도 맞춤형 법률지원으로 도민화합에 앞장서는 전북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김학수		부회장 이연주	
총무상임이사	김영호	이사	이현규
재무상임이사	이민호	이사	국윤호
공보상임이사	박형운	이사	강성명
인권상임이사	김현승	이사	남준희
교육상임이사	우아롬	이사	홍요셉
법제상임이사	유주환	이사	이희열
여성상임이사	박정교	이사	김진미
군산상임이사	최선규	이사	박민수
정읍상임이사	채규달	이사	이삼일
익산상임이사	양승일	이사	이보향
		이사	국순화

## 전북지방변호사회는 도민 여러분의 곁에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변호사회 사무국 ☎ 063)252-7710 Fax: 0505-299-7568